

# WBC '왕별' 오타니, 빅리그 개막전 선발 출격

마이너리그와 시범경기에 한 차례 등판... 바뀐 룰 속지  
충분한 체력 회복 배려... 애슬레틱스戰 여유있게 준비

22일(한국시간) 지난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투타에 걸친 맹활약으로 일본 야구를 세계 정상에 올려 놓은 주인공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 활약중인 오타니 쇼헤이였다. 이번 WBC는 오타니의, 오타니를 위한, 오타니에 의한 대회였다고 할 정도였다.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9회 등판해 구속 165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뿌려낸 오타니가 소속팀으로 복귀해 MLB 2023시즌 개막전을 준비한다.

필 네빈 에인절스 감독은 23일 MLB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오타니는 25일 마이너리그 경기에 한 차례 등판한다. 오타니에게는 충분히 회복할 시간과 환경이 필요하다"며 "오타니는 편안한 상태에서 31일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개막전 선발 등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타니의 시범경기 기간 마지막 등판을 메이저리그 시범경기가 아닌 마이너리그 경기로 정한 것은 이미 전구구 스타 플레이어이지만 WBC를 통해 위상이 더 높아진 오타니가 조금이나마 노출이 될 뻔한 상태에서 투구하길 바라는 에인절스 구단의

배려다.

WBC에 출전하기 전 MLB 시범경기에 한 차례 등판했던 오타니는 25일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피치 클록 등 2023시즌 새 규정을 다시 익힐 계획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번 시즌부터 '피치 클록'을 도입했다. 주자가 없으면 15초, 주자가 있으면 20초 안에 투수가 공을 던져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동으로 볼 하나가 선언되는 경기 촉진 룰이다.

오타니는 2023 WBC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였다. 그는 타자로 7경기 타율 0.435(23타수 10안타), 1홈런, 8타점, 9득점, 10볼넷, 투수로 3경기 2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86을 올렸다.

WBC 결승전 마지막 장면도, 오타니를 주인공으로 쓴 각본 같았다. 오타니는 미국과의 결승전 3-2로 앞선 9회초에 투수로 등판해 2사 후 에인절스 동료이자, 미국 주장에 현역 최고 타자로 손꼽히는 마이크 트라우트를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뿌려 삼진 처리하며 경기를 끝냈다.

네빈 감독은 "결승전에서 오타니는 1이닝만 던지기로 구단과 약속했다. 오타니가



WBC 우승으로 기쁨을 만끽한 오타니 쇼헤이가 소속팀으로 복귀해 MLB 2023시즌 개막전을 준비한다.

AP-연합뉴스

중요할 때 이닝을 던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렇게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줄은 몰랐다"며 "오타니와 트라우트 중 누구를 응원했나"라고 묻는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나는 이 스포츠, 야구를 응원했다.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가 아닐까"라고 WBC 마지막 장면을 떠올렸다.

일본과 오타니에게 우승을 내준 뒤 "이제 1라운드가 끝났다"며 2026년 WBC 오타니와의 재대결을 예고한 트라우트는 다시 오타니의 동료가 된다.

트라우트는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시범 경기에는 뛰지 않고 27-29일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지역 라이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프리웨이 시리즈에 출전할 계획이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괴물 수비수' 김민재 몸값 세리에A 베스트 11에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에서 활약 중인 수비수 김민재(오른쪽).

연합뉴스

### 1년 전 튀르키예 리그 때보다 몸값 다섯 배나 상승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에서 활약중인 '괴물 수비수' 김민재(26)의 몸값이 리그 내 베스트 11에 포함될 정도로 급상승했다.

연합뉴스는 축구선수 이적을 전문으로 다루는 트랜스퍼마크트가 22일(한국시간) 업데이트한 세리에A 선수들의 시장 가치에 따르면 김민재의 몸값이 5000만 유로(약 705억 원)로 폭등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는 세리에A 11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소속팀 나폴리 내에선 빅터 오시멘(1억 유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8500만

유로)에 이어 3위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6000만 유로를 기록 중인 손흥민(토트넘)에 이어 2위, 전 세계 센터백 중에선 15위, 또 1996년생 선수 중에선 6위에 이른다.

지난해 7월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2022-23시즌 정규리그 26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작성하는 등 공식전 35경기에 출전하며 주전 자리를 꿰찼다. 이와 함께 팀의 세리에A 선두 독주와 창단 첫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UCL) 8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시즌 초반이던 지난해 9월 그의 시장가치

추산치는 2500만 유로였다. 이탈리아 무대에 안착하면서 중앙 수비수로서 '벽'의 가치를 입증하며 반년 만에 무려 두 배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3500만 유로가 됐고, 4개월 만에 1500만 유로가 더 보태져 김민재의 몸값은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연고로 하는 페네르바체 소속이던 지난해 3월 말과 비교하면 1년 새 시장 가치는 1100만 유로에서 다섯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한편, 이번 시즌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은 지난해 11월 7000만 유로에서 시장 가치가 하락했다. 2020년 12월 9000만 유로로 정점을 찍은 이후 그의 몸값은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손흥민, 김민재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마요르카)의 몸값이 나란히 12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이원상 기자 hsrin@skyedaily.com

## PGA 최장타 로리 매길로이 "골프공 비거리 규제 찬성"

남자 골프 세계 랭킹 3위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세계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영국 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밝힌 골프공의 비거리 규제 조치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터넷 방송 '노 레임업'이 23일(한국시간) 공개한 매길로이와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매길로이는 "비거리 규제 조치에 찬성한다"며 "동료 선수들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조치로 누가 최고의 선수인지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R&A와 USGA는 지난주 공동 성명을 통해 시속 127마일의 스윙 스피드로 타격했을 때 공이 비거리 317~320야드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들의 평균 비거리가 2003년 286야드에서 이번 시즌 297.2야드로 늘었고, 이에 따라 골프 경기가 장타에 주로 의존하는 흐름이 생겼으며 코스도 함께 길어지면서 유지 관리 비용 증가와 환경에 악영향 등의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 하고, 골프공 개발 및 제조에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규정이지만 다수 선수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저스틴 토머스, 브라이슨 디샬보(이상 미국) 등 PGA 투어와 LIV 골프 등에서 뛰는 정상급 선수들이 일제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매길로이가 이례적으로 찬성 입장을 들고 나왔다.

게다가 매길로이는 이번 시즌 PGA 투어에서 평균 326.6야드를 날려 장타 부문 1위를 달리는 선수라 더욱 이례적인 반응이다. 자신이 장타로만 승부를 보는 선수가 아니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로리 매길로이.

연합뉴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sup>2</sup>

# 550cc 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